

정부부처 예산 확보 막바지

이승복 군산부시장, 행정안전부 방문 현안 반영 건의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이 국회 예산 소위기간 군산시의 주요사업 증액을 위해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하는 등 막바지 예산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강임준 시장을 중심으로 국회단계 총력 대응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11월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고용 및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예

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이승복 부시장의 행정안전부 방문은 예결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의 감액을 방지하고 증액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매출상승 요인이 없는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의 골목상권 매출액이 상승

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내년도 국비 200억 추가 지원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을 지역주도형 경제 활성화 성공모델로 정착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계해 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이 지역상권 회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피력하고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승복 부시장은 "현재 군산시의 고

용 및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비롯한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이 부시장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군산시와 관련된 예산이 마지막까지 감액되지 않고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전북도의 유기적인 공조를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민선7기 시민 배심원제 운영

익산시가 민선7기 공약실천 과정으로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시민배심원은 정책공약 수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공약실천계획을 평가하고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수립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28일 민선7기 공약사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그 첫발인 시민배심원단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현을 익산시장의 참석하여 배심원단 위촉식을 가진 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시민배심원제 관련 교육과 시민배심원단 분임

구성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공약사업 추진지원(T/F)팀을 구성하고 수차례 보고회를 가졌다. 또한 지난 10월경 공약의 당사자인 시민의 직접참여확대를 위해 시민배심원제 시행과 이를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익산시 시민배심원제는 외부 전문기관인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주관으로 운영됨으로써 민선7 공약사업 이행평가에 대한 외부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 시민배심원단은 만 19세 이상 시민 중에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40명의 시민배심원



익산시가 공약실천 과정으로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사진은 익산시청 전경.

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차례의 회의 및 현장 활동을 추가로 갖고, 민선 7기의 6대 비전과 86개 사업의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하여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공약의 최대 수혜자이자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민

들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의 소수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어 일반시민이 직접 공약에 대해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시민배심원의 의견을 민선7기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24시간 가동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가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고 직접 현장 확인 후 심의를 통해 방법으로 확인되면 1회 5만원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호구조과장은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2018 성과발표회 개최

2018 군산시 드림스타트 성과발표회가 28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들과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부모,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011년 4월 군산시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된 이후 3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올 한해 드림스타트와 함께 해 온 아동과 부모, 지역사회 참여

자들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대상아동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부모에게는 한층 성장한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는 군산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드림스타트사업 경과보고 및 홍보영상 ▲우수아동 및 부모,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에 대한 시상과 감사패 수여 ▲특별공연 및 드림아동 공연 등이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모든 아이가 행

복한 세상을 꿈꾸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아동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드림스타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협력기관 및 후원자 등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시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의 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향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내년도 예산안 통과 주문

정현을 익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전액 통과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총력을 쏟아 줄 것을 주문했다. 간부회의에서 정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 첫 본 예산인 만큼 '도시의 상생발전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정혁신과 선진화 구현',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

시 조성' 등 민선7기 시정운영의 핵심가치가 담겨 있다"면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시민 중심의 시정에 초점을 맞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단순 수치치만 아닌 시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며 "민선7기의 순항을 위한 첫 관문인 이번 예산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시는 2019년 본예산에 일반회계 1조 712억 원, 특별회계 1,147억 원으로 총 1,859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946억 원 증가한(8.7%) 규모다.

2019년 본예산은 28일 개최되는 익산시의회에서 12월 20일까지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새로운 한·중 관계 모색

원광대, 내달 1일 국제공동학술대회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염승준)은 오는 12월 1일 교내 새천년관에서 '중미 통상 분쟁과 새로운 한중관계의 모색'을 주제로 2018 추계 국제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산하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및 (사)한국산업경제학회와 공동 개최하며, 학제 간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위해 한·중·미 세션 및 산업경제 세션으로 구분하여 10개 세부 분과별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중관계연구원이 주재하는 한·중·미 세션에서는 최근 발생한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따른 관세 제재 조치 사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발표가 이루어지며, 중국산동청년정치학원 웨이웨이 교수,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부경대 서창배 교수, 원광대 정규식,

최자영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고, 통일연구원 내용우 연구원, 건국대 김옥 교수, 동의대 이홍배 교수, 산업연구원 조은교 박사, 군산대 강태원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한중관계연구원은 그동안 중국과 한국 간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현상에 관해 원인과 함의를 조사 연구해왔으며, 최근 이슈화된 미·중 무역 분쟁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한·중·미 삼국의 관계성을 심도 있게 풀이할 예정이다.

염승준 한중관계연구원장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흐름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 맥락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로 평가할 만하다"고 학술대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는 15명을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명예홍보대사 위촉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남균)는 28일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 경영자협의회 소속 10개 업체 및 5개 유관기관의 인사 관계자 등 15명을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각 기업체의 인사 관계자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센터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업체에서는 구인난을 해결하고 실업자에게는 취업보장을 통해 군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명예홍보대사 위촉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명예홍보대사는 각 기업체의 인력 수급정보를 공유 및 제언하고,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사업 홍보, 기타 고용위기

극복 아이디어 제안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올해가 취업의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다가오는 2019년은 취업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의 명예홍보대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활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 등 군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예홍보대사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시에서도 고용위기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